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

최 효 미*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제활동인구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게다가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으면서 이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는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편 자영업 부문의 과잉고용과 경쟁력 상실에 정부의 무분별한 창업지원 정책이 한 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²⁾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II. KLIPS에서의 자영업자의 정의와 측정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차~6차년도 조사 자료 중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1) 2002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36.0%였으며, 일본 15.4%, 미국은 7.2%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5년 전망」, 『노동리뷰』, 2005. 1월호 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2) 1999년부터 정부는 1조 8,980억원을 들여 자영업 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전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대상³⁾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 변화와 근로소득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1998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1회 동일한 가구 및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반복조사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임금근로자들에게도 매년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연간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서, 자영업자 비중의 변화와 그들의 근로소득 수준을 살펴볼 때 가장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란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인 자를 의미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자는 프리랜서, 구멍가게 주인과 같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이고,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⁴⁾ 본고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소득과 비교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특성을 살펴보았다.

III. 자영업 부문 종사자수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⁵⁾은 <표 1>에서 보듯이, 1998년에 17.1%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2003년에는 1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8년 68.3%이던 것이 2003년에는 72.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⁶⁾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
- 3)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임금근로 부문에 비해 비임금근로 부문 중 특히 자영업 부문에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저학력 고령자이면서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의 소득만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농림어업 부문 종사자를 제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4)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우면서 18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된다.
 - 5)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표본은 개인용과 신규용에 응답한 개인이 조사당시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일자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 6)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6차년도 자료까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가지고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영업자의 비중을 비교하여 관찰할 수 없다. 다만, 금재호 · 류재우 · 전병유 · 최강식(2002)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

〈표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노동패널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명, %)

〈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998	5,905 (100.0)	4,034 (68.3)	1,871 (31.7)	525 (8.9)	1,008 (17.1)	338 (5.7)
1999	5,654 (100.0)	3,949 (69.8)	1,705 (30.2)	491 (8.7)	856 (15.1)	358 (6.3)
2000	5,283 (100.0)	3,662 (69.3)	1,621 (30.7)	460 (8.7)	811 (15.4)	350 (6.6)
2001	5,293 (100.0)	3,773 (71.3)	1,520 (28.7)	446 (8.4)	749 (14.2)	325 (6.1)
2002	5,490 (100.0)	3,939 (71.8)	1,551 (28.2)	480 (8.8)	732 (13.3)	339 (6.2)
2003	5,749 (100.0)	4,156 (72.3)	1,593 (27.7)	506 (8.8)	764 (13.3)	323 (5.6)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998	17,330 (100.0)	11,856 (68.4)	5,474 (31.6)	1,363 (7.9)	2,974 (17.2)	1,138 (6.6)
1999	17,765 (100.0)	12,172 (68.5)	5,593 (31.5)	1,320 (7.4)	3,138 (17.7)	1,136 (6.4)
2000	18,650 (100.0)	12,859 (68.9)	5,792 (31.1)	1,425 (7.6)	3,194 (17.1)	1,173 (6.3)
2001	19,125 (100.0)	13,151 (68.8)	5,974 (31.2)	1,511 (7.9)	3,293 (17.2)	1,170 (6.1)
2002	19,771 (100.0)	13,654 (69.1)	6,117 (30.9)	1,576 (8.0)	3,390 (17.1)	1,151 (5.8)
2003	19,867 (100.0)	13,916 (70.0)	5,950 (30.0)	1,597 (8.0)	3,259 (16.4)	1,094 (5.5)

추세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노동패널조사에 비해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비중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패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17.1%이던 것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며 2003년에는 13.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17.2%로 노동패널과 유사한 비중을 보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03년 들어서야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추세는 자영업자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 부문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에 들어왔다가, 지나친 경쟁과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후, 해가 거듭될수록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자영업자의 근로소득⁷⁾

<표 2>에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된 자영업자의 평균 명목소득과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을 제시하였다. 2003년에 전체 취업자의 명목 근로소득은 163만 1천원이었다. 또 자영업자의 명목 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25만 6천원이 높은 1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가 체감하는 임금수준인 실질소득으로는 1998년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23만 3천원이었으며, 1999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147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임금근로자의 임금 추이에 서 동일하게 나타나, 1998년 114만 7천원이던 월평균 근로소득이 1999년 105만 5천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0년부터 조금씩 늘어나 2003년에는 131만원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1998년에는 114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9년에는 115만 9천원, 2000년 116만 5천원, 2001년 137만8천원, 2002년 155만8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03년에는 154만 5천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1998년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표 2> 평균소득 변화 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만원, %)

	전 체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998	119.6	123.3 (-)	110.6	114.0 (-)	111.3	114.7 (-)
1999	111.3	113.8 (-7.7)	113.3	115.9 (1.7)	103.1	105.5 (-8.0)
2000	119.7	119.7 (5.2)	116.5	116.5 (0.5)	109.0	109.0 (3.3)
2001	136.9	131.5 (9.9)	143.4	137.8 (18.3)	120.0	115.3 (5.8)
2002	150.7	141.0 (7.2)	166.5	155.8 (13.1)	131.0	122.5 (6.2)
2003	163.1	147.3 (4.5)	171.0	154.5 (-0.8)	145.4	131.3 (7.2)

주: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실질소득 상승률

7) 노동패널조사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비용제외)’라고 질문하고 있다. 해당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자의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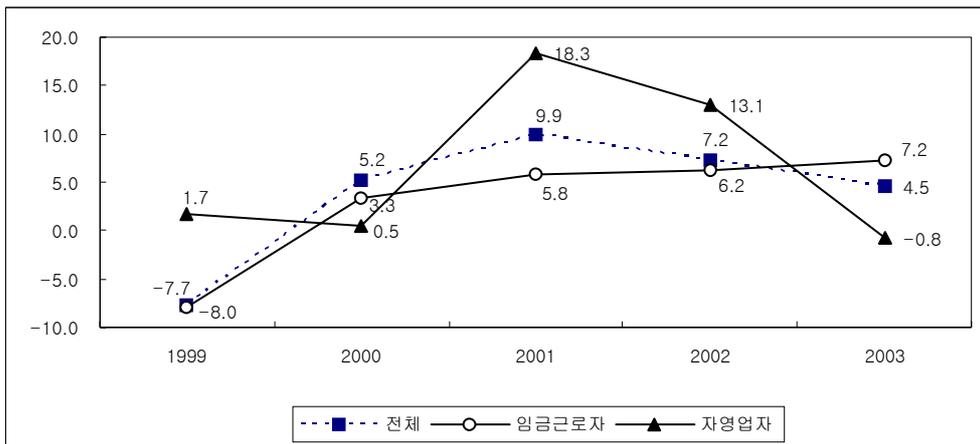
7천원이 적었던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999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3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실질근로소득의 전년대비 상승률에 있어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1998년에 비해 1999년에 실질소득이 8.0%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3년에는 전년대비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실질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1999년에도 이들의 소득증가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1.7% 상승하였고, 특히 2001년 실질소득상승률은 1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에 비해 서도 12.5%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실질근로소득이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1999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반해, 1998년에 낮은 수준이었던 자영업자의 소득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그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실질근로소득 상승률

(단위: %)



그러나 평균소득이 높다는 사실이 자영업자들 모두가 임금근로자들보다 소득이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높다는 것이 극소수의 초고소득자와 대다수의 극빈자에 의한 것이라면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의 평균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득의 분포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을 통해 대략적인 소득 분포⁸⁾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일자리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20.6%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7.1%에 그쳤다.’⁹⁾ 이와 같이 적자를 보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든 원인은 적자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포기하고 적은 소득이라도 보장되는 임금근로 부문으로 이동을 했거나, 다행히도 적자상태를 벗어나긴 했으나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 33.8%였으나, 2003년에는 24.4%로 감소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으로 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41.2%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0만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 도 증가했으며, 이는 자영업부문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표 3> 구간별 자영업자의 소득분포 비중(비농 전산업)

(단위: %)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998	20.6 (20.6)	33.8 (33.8)	33.7 (33.7)	9.5 (9.5)	2.4 (2.4)
1999	16.1 (16.1)	36.4 (36.4)	36.3 (36.3)	8.7 (8.7)	2.6 (2.6)
2000	9.0 (9.0)	35.3 (35.3)	40.8 (40.8)	11.1 (11.1)	3.8 (3.8)
2001	10.5 (10.5)	31.7 (46.2)	35.4 (33.6)	16.7 (7.6)	5.7 (2.2)
2002	8.2 (8.2)	23.8 (38.5)	37.4 (36.2)	18.4 (11.6)	12.2 (5.5)
2003	7.1 (7.1)	24.4 (41.2)	35.8 (33.4)	20.6 (12.5)	12.1 (5.8)

- 주: 1) 괄호 안은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구한 비중.
- 2)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 3) 소득이 0인 경우는 100만원 미만에 포함됨.

V. 분위별 평균 근로소득¹⁰⁾

소득분배에 관한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소득수준별로 표본을 10등분하여

- 8) 본 분석에 사용된 자영업자의 표본수는 매해 700개 안팎으로 소득 구간을 이동하는 표본이 불과 몇 십개라 할지라도 그 비중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 9)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임금근로자가 현재 일자리를 통해 적자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을 뿐, 적자액 수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10) 이하에서 사용한 소득이라 함은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표 4〉 분위별 평균소득

(단위: 만원, %)

	전 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분위	306.4 (24.8)	279.4 (24.5)	299.5 (25.0)	375.3 (28.5)	392.8 (27.9)	404.7 (27.5)
2분위	194.3 (15.8)	177.9 (15.6)	185.0 (15.5)	196.0 (14.9)	214.0 (15.2)	228.9 (15.5)
3분위	155.7 (12.6)	145.9 (12.8)	150.0 (12.5)	156.7 (11.9)	176.2 (12.5)	180.4 (12.2)
4분위	130.8 (10.6)	119.1 (10.5)	127.7 (10.7)	135.6 (10.3)	142.5 (10.1)	150.7 (10.2)
5분위	107.2 (8.7)	102.2 (9.0)	105.1 (8.8)	111.8 (8.5)	123.5 (8.8)	132.0 (9.0)
6분위	99.8 (8.1)	91.2 (8.0)	96.3 (8.0)	96.1 (7.3)	101.1 (7.2)	109.7 (7.4)
7분위	82.9 (6.7)	76.9 (6.8)	80.1 (6.7)	84.1 (6.4)	90.3 (6.4)	90.9 (6.2)
8분위	67.9 (5.5)	64.2 (5.6)	67.3 (5.6)	71.4 (5.4)	73.5 (5.2)	77.9 (5.3)
9분위	54.6 (4.4)	51.5 (4.5)	54.4 (4.5)	55.5 (4.2)	60.2 (4.3)	61.5 (4.2)
10분위	33.9 (2.7)	29.9 (2.6)	31.4 (2.6)	33.2 (2.5)	36.2 (2.6)	37.0 (2.5)

주: 1) 적자라고 응답한 개인들은 제외하였으며, 소득이 0인 경우는 100만원 미만에 포함됨.

사용하는 10분위 소득지표이다. 이 방법은 우선 개인을 소득 순위별로 늘어놓은 다음, 순서대로 10등분하여 분위별 소득을 비교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때 1분위란 소득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10분위란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를 최상위로, 하위 10%를 의미하는 10분위를 최하위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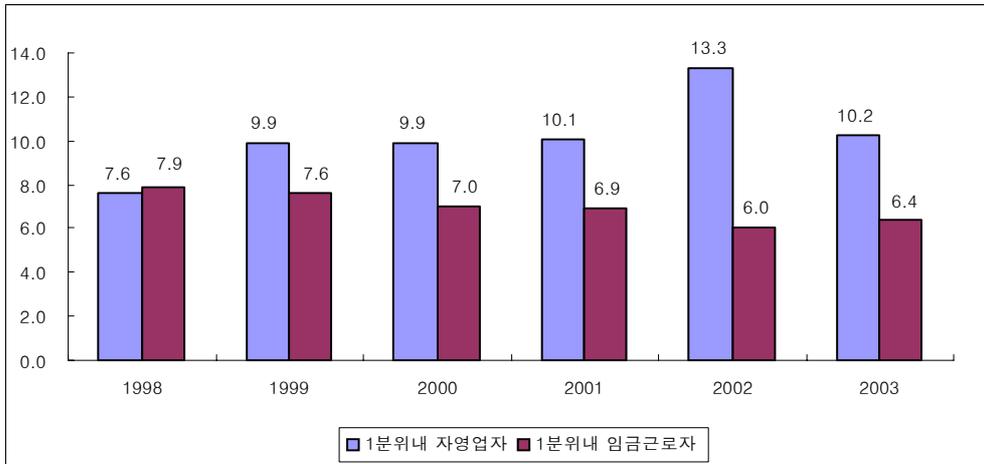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취업자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1998년에 306만4천원이었고, 1999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404만7천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10분위에 속한 취업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1998년 33만9천원에서 2003년 37만원으로 단지 3만1천원이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림 2]와 [그림 3]은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 중에서 최상위와 최하위에 속해 있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최상위에 속해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998년 7.9%였으나, 그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3년에 이르면 6.4%에 불과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7.6%에 지나지 않았으나,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03년에 조금 감소하여 10.2%를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에 속할 확률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최하위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2003년에 14.3%로, 임금근로자가 최하위에 속할 확률(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최상위뿐 아니라 최하위에도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보다 양극화 되어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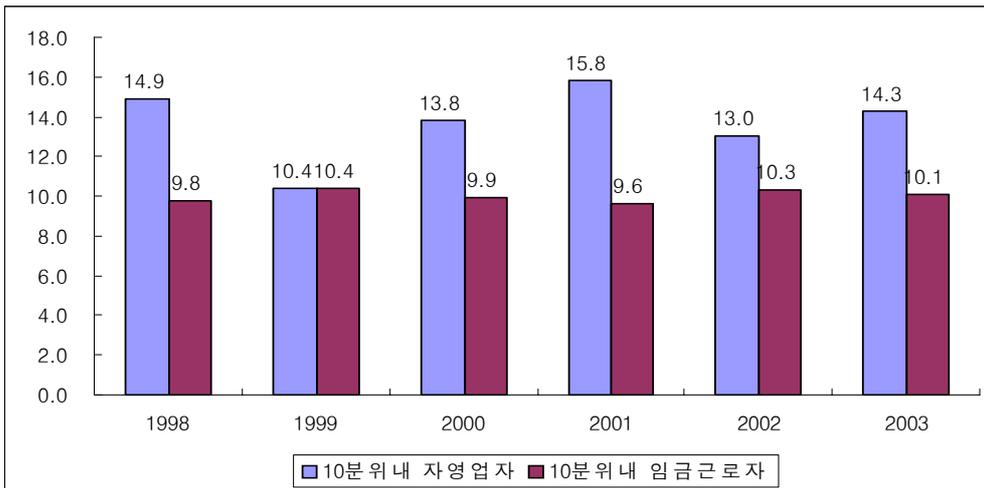
[그림 2] 최상위 분위내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의 비중

(단위 : %)



[그림 3] 최하위 분위내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의 비중

(단위 : %)



한편, 2003년에 분위별 근로소득을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최상위의 근로소득은 315만 4천원이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469만 6천원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그러나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70.2% 수준에 불과한 26만 6천원이었다. 또한 1998년 최상위의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가 258만 4천원, 자영업자가 265만 8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 격차가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 와서는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이 임금근로

〈표 5〉 종사상지위에 따른 분위별 평균소득(비농 전산업)

(단위 : 만원, %)

〈자영업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분위	265.8 (23.3)	301.2 (26.0)	271.2 (23.2)	424.0 (30.7)	452.4 (29.0)	469.6 (30.3)
2분위	188.4 (16.5)	177.8 (15.3)	190.3 (16.3)	194.6 (14.1)	243.7 (15.6)	239.7 (15.5)
3분위	153.7 (13.5)	152.2 (13.2)	150.0 (12.9)	177.5 (12.9)	187.1 (12.0)	180.8 (11.7)
4분위	118.3 (10.4)	118.3 (10.2)	134.0 (11.5)	144.1 (10.4)	164.2 (10.5)	165.4 (10.7)
5분위	103.1 (9.0)	102.2 (8.8)	100.7 (8.6)	123.1 (8.9)	140.3 (9.0)	135.5 (8.8)
6분위	99.9 (8.8)	97.2 (8.4)	100.0 (8.6)	96.1 (7.0)	113.8 (7.3)	107.0 (6.9)
7분위	78.7 (6.9)	77.4 (6.7)	83.7 (7.2)	87.8 (6.4)	93.5 (6.0)	90.3 (5.8)
8분위	61.0 (5.3)	60.3 (5.2)	68.3 (5.9)	65.1 (4.7)	83.0 (5.3)	79.7 (5.1)
9분위	47.4 (4.2)	48.1 (4.1)	47.8 (4.1)	46.9 (3.4)	55.8 (3.6)	53.2 (3.4)
10분위	23.9 (2.1)	23.6 (2.0)	20.9 (1.8)	20.8 (1.5)	27.0 (1.7)	26.6 (1.7)

〈임금근로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분위	258.4 (22.5)	241.8 (22.9)	243.7 (22.4)	268.3 (23.3)	289.7 (23.6)	315.4 (24.0)
2분위	179.4 (15.6)	163.8 (15.5)	166.2 (15.2)	179.1 (15.5)	190.2 (15.5)	201.5 (15.3)
3분위	148.0 (12.9)	134.5 (12.8)	141.3 (13.0)	144.0 (12.5)	152.9 (12.5)	169.2 (12.9)
4분위	124.7 (10.9)	112.1 (10.6)	119.2 (10.9)	123.2 (10.7)	133.6 (10.9)	140.1 (10.7)
5분위	104.7 (9.1)	100.3 (9.5)	101.0 (9.3)	104.1 (9.0)	112.9 (9.2)	123.1 (9.4)
6분위	95.5 (8.3)	85.5 (8.1)	89.3 (8.2)	93.9 (8.1)	95.2 (7.8)	102.9 (7.8)
7분위	79.7 (6.9)	74.0 (7.0)	76.5 (7.0)	80.2 (7.0)	83.9 (6.9)	88.8 (6.8)
8분위	66.8 (5.8)	61.9 (5.9)	65.4 (6.0)	69.8 (6.1)	71.0 (5.8)	74.3 (5.7)
9분위	54.7 (4.8)	50.7 (4.8)	54.2 (5.0)	55.7 (4.8)	59.2 (4.8)	59.8 (4.6)
10분위	35.4 (3.0)	29.9 (2.8)	33.3 (3.1)	35.1 (3.0)	37.0 (3.0)	37.9 (2.9)

주 : 1) 실질소득 = 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괄호 안은 전체소득 중 해당분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3) 적자라고 응답한 개인들은 제외하였으며, 소득이 0인 경우는 100만원 미만에 포함됨.

자에 비해 154만2천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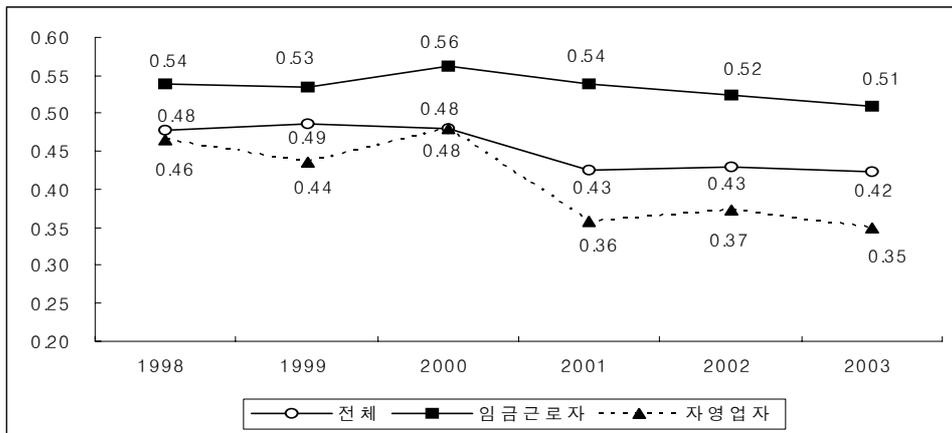
한편 2003년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전체 자영업자 근로소득의 30.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인 경우 최상위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24.0%로 자영업자에 비해 6.3%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편차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클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그림 4]에 제시된 10분위 분배율을 가지고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0분위 분배율이란 소득수준이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적음을 의미하며, 소득격

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2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임금근로자의 10분위분배율은 1998년에 0.54, 1999년 0.53, 2000년 0.56으로 변동하며, 이후 다소 하락하여 2003년에 0.51의 값을 가진다. 즉 2000년 이후 소득분배가 다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의 10분위 분배율은 1998년 0.46에서 2000년 0.48까지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듯 했으나, 2001년 다시 0.36으로 감소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 자영업자의 10분위 분배율은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7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자영업 부문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종사상 지위별 십분위 분배율 추이



VI. 최상위 및 최하위 분위 자영업자의 특성

다음으로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우선 최상위에 속한 여성의 비중은 10%에 불과했으나, 최하위에서는 2/3가량인 66.2%가 여성이었다. 결국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자영업자에 비해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40~49세의 비중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50~60세의 비중도 31%에 달했다. 이는 40대 자영업자의 경우 왕성한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반해, 60대 자영업자들은 생계 혹은 소일거리로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최상위 및 최하위 자영업자의 특성(2003년)

(단위: %)

		최상위	최하위	
성 별	남성	90.0	33.8	
	여성	10.0	66.2	
연령별	15세~29세	1.4	4.2	
	30세~39세	21.4	9.9	
	40세~49세	48.6	15.5	
	50세~59세	24.3	31.0	
	60세 이상	4.3	39.4	
교육정도별	고졸미만	17.1	66.2	
	고졸	50.0	23.9	
	전문대졸이하	12.9	5.6	
	대졸	15.7	4.2	
대학원이상	대학원이상	4.3	0.0	
	산업별 ¹¹⁾	광공업	10.0	8.6
		건설업	8.6	0.0
		도소매음식숙박업	35.7	61.4
		운수통신업	10.0	1.4
금융부동산업		14.3	5.7	
공공서비스업		21.4	22.9	
일자리 지속기간별	12개월미만	8.6	11.3	
	12개월이상 60개월 미만	52.9	28.2	
	60개월 이상	38.6	60.6	

이와 같은 특징은 교육수준별 특성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데, 자영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최상위에서는 20%에 달하였으나, 최하위의 경우엔 4.2%에 그쳤다. 그러나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사람들로 자영업자의 학력수준이 소득수준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해 온 기간별로는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들이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에 비해 사업체를 오래도록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가 연령이 높고 전문적 기술이 부족하여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 최상위에서는 1년~5년 정도 사업체를 운영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한 사업체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보다도 적절한 때에 사업

11)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2002)를 기준으로 하며, 금융부동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50~670) 혹은 부동산 및 임대업(700~713)인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업은 정보처리·컴퓨터운용·연구개발·전문과학서비스·사업지원(720~750), 공공행정(760~765), 교육서비스(800~809), 보건사회복지(850~862), 오락문화운동(870~889), 기타공공·수리개인사업(900~939), 국제 및 외국기관(990)을 포함한다.

체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높은 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산업별로는 분위에 상관없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상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35.7%) 뿐만 아니라, 금융부동산업(14.3%), 공공서비스업(21.4%) 등 비교적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높는데 반해, 최하위에 속한 사람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61.4%)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I.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의 특징을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는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조금 낮았으나, 1999년부터는 오히려 자영업자의 평균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1~2002년 사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2003년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20.6%에 달했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03년에는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중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월평균 실질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 33.8%에서, 2003년에는 41.2%로 크게 증가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최상위에는 임금근로자(2003년 6.4%)보다 자영업자(2003년 10.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층에서도 자영업자(2003년 14.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각 종사상 지위별로 소득을 순위에 따라 10등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자영업 부분의 소득격차가 임금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03년 469만6천원(자영업자 전체 소득 중 30.3%)으로 최상위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315만4천원(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24.0%)에 비해 154만2천원이나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는 40대 남성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해,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이

거나 여성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단순히 평균소득만으로 그들의 소득이 여전히 낮다거나, 반대로 낮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이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된 소득분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 관련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 자영업자 혹은 고령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